

세계관, 부르심과 삶이 하나가 되는 길

국제 DNA(The Disciple Nations Alliance)의 공동설립자인 대로우 밀러(Darrow Miller)와 밥 모피트(Bob Moffitt) 박사가 한국 DNA 협의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본보 김승욱 발행인의 사회로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김의원(백석대 부총장) 부이사장과 대로우 밀러의 좌담회가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사회: 김승욱(중앙대 교수, 발행인)

Question 오늘 두 분을 함께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먼저 대로우 밀러 박사님,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Answer 밀러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그냥 대로우 밀러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밥 모피트(Bob Moffitt)와 함께 DNA를 설립했습니다. DNA는 Disciple Nations Alliance의 약자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 28:19)고 하신 명령을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저는 DNA를 주님이 말씀하셨던 누룩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룩처럼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국제기아대책기구(Food for the Hungry)에서 27년을 봉사했습니다.

Question DNA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합니까?

Answer 밀러 이는 적절한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DNA에 프로젝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세계관 운동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 계시는 분들은 세계관을 추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접근 방법은 다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기아문제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즉 기아 문제와 세계관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잘못된 세계관을 버리고 올바른 세계관을 갖도록 합니다.

Answer 김의원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도 기독교적 세계관을 교수들끼리 학문적 영역에서 추구하다 보니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일반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Question 좀전에 가난의 원인이 세계관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세계의 기아문제와 세계관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Answer 밀러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가난한 것이 자원이나 자본 또는 기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개발도상국 대부분은 정령숭배(애니미즘)에 빠져 있습니다. 애니미즘의 전통 신념은 영이 자연을 움직인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면 운명론자가 되거나 악한 영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난을 속명으로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서구 기술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티의 경우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은 물론 이후에도 해외 원조가 매년 20-30억 달러(2-3조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여전히 가난합니다. 인구의 80%가 카톨릭이고, 나머지 20%는 개신교입니다. 즉 100%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 100%가 부두술사를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정령숭배가 아이티로 전해진 것인데, 이들은 강력한 정령술사들을 믿습니다. 모든 아이티인들은 정령숭배자들로, 모든 교회가 영향 받고 있으며 기독교가 이러한 전통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중생해도 정령숭배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지성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Question 그런 점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김의원 부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Answer 김의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불교와 유교 문화에서 살다보니 옛 사고체계를 그대로 지니고 있어 중생한 한국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신자들뿐 아니라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운 목사님들마저도 그들의 지성과 감성은 유불교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신앙생활을 '행위(Doing)의 목록으로 간주할 뿐 '존재(Being)의 변화로 보지 못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분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다보니 온전한 삶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나 봅니다.

Answer 밀러 또 거짓도 국가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사회에 거짓과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케냐인들의 80%가 기독교로 주일마다 교회가 가득 차지만 부정부패가 여전합니다. 뇌물이 일상으로 자리 잡았고 국민들은 가난합니다. 깨진 가정이 즐비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기독교 세계관을 전할 때는 매우 실질적으로 이해시켜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들을 가난에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사회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열쇠는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사회를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도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DNA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Question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Savior)이심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주인(Lord)이심을 강조하십니다. 살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삶의 모든 측면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기독교 세계관을 훈련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밀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쓴 <Discipling Nations>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윤명석 역, 예수전도단, 1998)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The Power of Truth to Transform Cultures"(문화를 변화시키는 진리의 힘)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서구의 무신론적 세속주의와 비서구 지역의 정령숭배(애니미즘) 세계관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과 어떻게 다른지도요, 일의 의미는 무엇이고, 창조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정령숭배 세계관의 결과는 무엇이며, 성경적 세계관이 왜 우수한지를 우주적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정치적 관점,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과업에 대한 관점 등으로 설명했습니다. 아까 거짓말이 빈곤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비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도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교에서도 여성의 지위에 대해 성경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교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는데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이러한 거짓은 잘못

된 사회 구조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는 여성뿐 아니라 결국 남자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Answer 김의원 남존여비는 옛날 이야기이고, 이미 한국은 더 이상 유교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존남비'가 되어 여성의 파워가 너무 강해서 문제입니다. (모두 웃음) 이것도 남자와 여자의 성경적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Answer 밀러 케냐 문화에는 여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여성을 도구(Tools)라고 부릅니다. 즉 여성은 인간이라는 단어의 범주(category)가 아니라 도구라는 단어의 범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도구와 같이 취급됩니다. 아이 낳고 집안일을 하는 도구라는 것이지요, 여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을 여성답게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며, 그렇게 될 때 사회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정신적 구조가 바뀌어야 사회가 변화됩니다.

Question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이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조보다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기독교 내에서 나눔과 분배가 더 중요한가, 성장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진보측에서는 나눔을 더 중시하는 반면 보수측에서는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원조 받은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원조 덕분이라기보다는 경제성장을 이룩했기 때문입니까. 경제성장에 대한 성경적 견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밀러 발전은 복잡한 개념이며 매우 포괄적인 개념의 한 부분이지요. 누가복음 2:52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 '키', '사랑', '사람에게' 등의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성숙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도 해당이 됩니다.

발전이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많은 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서구의 세속적 세계관에서는 물질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구의 세속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서 도덕적 측면이 없습니다. 가능한 부자가 되라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물론 물질적 성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성장은 물질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이디어가 사실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시려면 그 이전에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즉 꿈(dream)이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경제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비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전이 없어서입니다. 콩고를 봅시다. 콩고는 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자연 자원은 어느 나라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가난하고 빈곤으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반면에 싱가포르의 자원이 없습니다. 폭이 40km에 불과한 섬나라에 5백만의 인구가 삽니다. 마실 물도 말레이시아에서 사옵니다. 그런데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경제성장을 가져옵니다.



가난한 나라 대부분은 자본과 기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조와 도움은 의존성만 키워서 빈곤을 지속시킬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이나 자산이 얼마나 있는가가 아니라 세계관입니다. 나라를 제자 삼으라는 것은 그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심어주고, 올바른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싱가포르의 자원은 없었지만, 전략적인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항구와 지정학적으로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해운업 발전에 유리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발전하겠다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싱가포르의 발전 원인입니다.

Question 그런데 싱가포르에는 크리스천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콩고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기독교 사회는 경제성장을 못하고, 비기독교 사회는 비전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할까요?



Answer 밀러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가 천국에 가는 것만이 기독교인의 목표라고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케냐의 경우 60-8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정령숭배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 28:18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왕이시냐고 물으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늘나라라고 답합니다. 땅의 주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즉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왕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백 년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은 아닌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제자 삼으라 (Discipling nations!)”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대 문화를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원론에 빠져 있어 일요일에는 신자이지만 월요일에는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믿음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쓴 책 <Lifework: A Biblical Theology for What You Do Every Day> (라이프워크: 직업과 신앙이 하나 되는 삶의 능력, 예수전도단)의 주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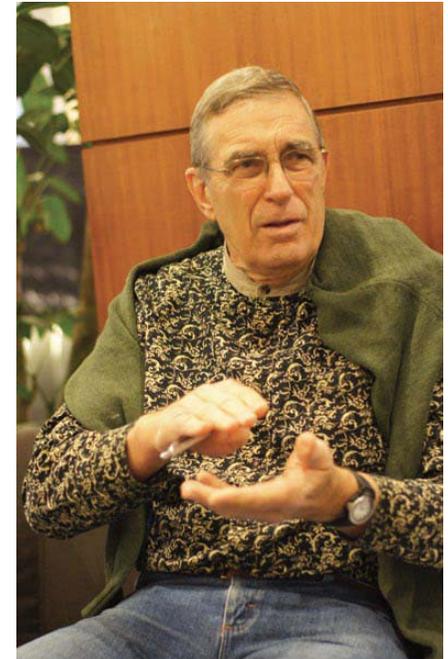
Answer 김의원 이원론에 대한 지적은 적절합니다. 특히 동양 사상에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려 합니다. 최근 교회는 ‘세속적’이라 믿는 모든 것에서부터 분리되어 ‘거룩’이란 영역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목회자’는 물론 ‘평신도 사역자’도 모두 ‘풀타임’ 사역자라고 강조합니다.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Answer 밀러 한국뿐 아니라 서구나 아프리카 모든 나라에서도 기독교는 이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지만,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의 크리스천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기도회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원론입니다. 기도 모임을 갖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이 전부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져야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부터 중세까지 통합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 당시 서구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를 추구하다가 도덕적 세계로부터의 자유도 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기독교인들 중 일부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섭리하지 않는다는 이신론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도 왜곡했습니다. 다윈 혁명을 통해서 이신론은 무신론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 없이 설명하려고 했고, 이것이 북아메리카에 퍼져 나갔습니다. 지금 일부 기독교 교단에서는 이 다윈이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에서 자랐는데, 출석하던 교회에서 목사가 주일 설교 시간에 기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물 위를 걷느냐? 예수님은 물 속의 돌을 밟고 걸었을 뿐이다. 오병이어 기적은 이기적이었던 군중이 아이가 점심 나누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점심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다. 오병이어 기적은 나눔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Question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한 교단은 우리와 세계관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군요. 김의원 부총장님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nswer 김의원 진보주의자들은 성경을 고대 근동에서 종교가 발전하는 과정 중 나타난 하나의 기록물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내용들을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옛날에도 일어날 수 없다’는 과학의 잣대로 재단하면서 초자연적인 내용을 모두 제거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Question 지금까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교단도 역시 이원론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Answer 밀러 그렇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역시 또 다른 극단입니다. 이들 역시 성경적 세계관을 버리고 그리스적 이원론을 수용했습니다. 이들은 다윈이즘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은 다윈이즘이 지배하게 내버려 두었어요. 과학은 내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반은 세상에, 나머지 반은 영적인 세계에 걸치고 소위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원론에 빠진 교회는 사회에 신앙과 세상을 통합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추상적이 아니라 실질적, 현실적인 답을 해야 합니다.

Answer 김의원 히브리적 사고에서 보면 삶이란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주일의 예배공동체뿐 아니라 일주일의 삶의 공동체가 병존해야 합니다.

Answer 밀러 성경은 삶의 모든 영역에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에 경제에 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경제나 사업에 대한 말씀이 매우 많습니다. 영혼구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측면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관리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전에 일본에서 건강관리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젊은 여성이 찾아와 15년간 교회에 다녔지만 성경적인 건강관리를 말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했는데, 하나님은 도시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좋은 도시는 어떤 도시이고, 나쁜 도시는 어떤 곳인가? 어떻게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인가? 도시에 대한 성경적 견해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인, 평일에는 세속주의자로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국의 신학교에서 이런 내용으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한 신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신학을 공부하는 4년 동안 이런 내용은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Answer 김의원 오랜 전에 제가 섬겼던 신학교에서 졸업학년에 기독교세계관 과정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 속한 여러 영역의 교수들—경제, 정치, 철학, 사회학 등—이 번갈아 가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도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총 7년 동안 신학을 배웠지만,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Question 결국 한국을 포함해서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목회자의 설교 때문이고, 결국 목회자를 키우는 신학교가 가장 중요한 것이군요. 신학교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신학교가 바뀔까요?

Answer 김의원 맞습니다. 오랜 전 신학교 교수회의에서 커리큘럼에 세계관 과정을 넣어야 한다고 하자, 한 교수가 세계관이 무엇이라고 질문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 웃음) 현재 섬기고 있는 학교에서는 신학대학원 입학과정에서 기독교 세계관 책들을 필독서로 읽게 하고 필기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신학을 배우기 전에 구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Answer 밀러 신학교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 과목을 한두 개 넣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커리큘럼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모든 과목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해야 합니다. 신학만 가르치고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구원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이터를 보십시오.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에 가는 것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건국 지도자들은 성경 그대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미국의 건국을 다룬 문서들의 34%가 성경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문서는 헌법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월버포스도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열다섯 가정이 클레팸공동체(Clapham Sect)를 만들어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고, 노동법을 바꾸고, 기독교에 기초해서 사회를 개혁했습니다.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대부분의 건국 공신들, 아마 70% 정도가 청교도들이었으며, 대부분 정신적으로는 청교도들이었으리라 봅니다. 청교도들은 모든 지식이 연결되어 있어 과학과 신학은 물론 모든 학문을 연결시켜서 교육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틘렉시아, 즉 지식의 연결을 강조했고, 하버드, 프린스턴 등 위대한 대학들을 세웠습니다.

Question 한국에도 초기 선교사들의 기여로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의 사립대학들이 세워졌고, 오늘날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속화되어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대학들에서조차 기독교적 학문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기독교 대학들이 세속화되었습니까?

Answer 밀러 크리스천들이 다윈이즘과 현대주의의 틀을 극복하지 못하고 숨었기 때문입니다. 성경만 가르치고, 학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학교도 이원론에 빠지면서 학문의 주도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종의 신자클럽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Question 이렇게 팽배한 이원론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Answer 밀러 저는 낙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회복하실 것입니다. 30-40년 후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Interviewer 김승욱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로우 밀러 DNA(Disciple Nations Alliance) 공동 설립자이며 저명한 작가이자 교사, 지난 25년 동안 컨퍼런스나 세미나에서 기독교와 문화, 변종론, 세계관, 민권, 여성의 존엄성을 주제로 명 강의를 해왔다. 1981년부터 2007년까지 국제기아대책기구를 섬겼으며, 1994년부터는 부총재로 재직했다. 기아대책기구에 합류하기 전 3년 동안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에서 프란시스 쉐퍼 박사에게 훈련을 받으며 간사로 사역했다. 국제 예수전도단의 DTG(예수제자훈련학교)와 열방대학 훈련 과정에서 성경적 세계관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김의원 현재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총장이다. 숭실대학교 철학과(B. A.), 웨스트민스터 신학교(M. Div., Th. M.)를 졸업했으며 뉴욕대학교 고대 근동어과에서 히브리어를 전공하고 철학 박사(Ph. D.)학위를 받았다. 뉴욕중부교회 설립하고 담임하였다. 홍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무처장, 홍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대원장, 홍신대학교 총장,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고 개혁주의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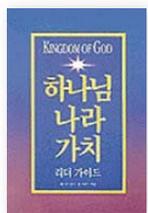
대로우 밀러의 서적을 소개합니다.



직업과 신앙이 하나되는 삶의 능력 라이프 워크

대로우 밀러 저 | 이해림 역 | 예수전도단
먹고 살기 위한 방법? 자아실현의 길? 선교의 수단? 하나님이 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뜻에 맞게 직업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기독교 사역이든 일반 직업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일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신다. 어떤 분야나 직업에 종사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그분의 사역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주일만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함께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평일의 직장에서도 그분 앞에 온전히 행하는 '코람 데오'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직장이 분리된 채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을 우리의 기준으로 나누어진 이원론적 세계관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교회와 직장,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영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의 일터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일상과 직업을 통해서 살으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라이프 워크'의 가치일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구원으로 부르심 받았다. 이는 모든 믿는 자가 반드시 응답하며 나아가야 하는 1차적 부르심이다. 하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각기 다르게 주시는 2차적 부르심은 직업으로의 부르심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나뉠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르심 받았다." _ 204쪽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가치

대로우 밀러 저 | NCD 편집부 역 | NCD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이며, 그분의 능력의 이야기이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다. 120페이지도 채 안 되는 이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짚지만 명쾌하게 저술하고 있다. 오랜 기간의 선교활동과 캠퍼스 사역을 통해 직접 체험한 이야기들을 성경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단지 나의 삶뿐 아니라 확장된 세계에서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나와 이웃, 그리고 우리 문화 사이의 세계관을 살펴보고 교회인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교회 밖의 세상으로, 도시로, 문화 속으로,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 사탄의 문들을 쳐부수야 한다.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권세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_114쪽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대로우 밀러 저 | 예수전도단
이 책의 제목은 독일의 사회경제학자 막스 베버의 명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를 차용한 것으로, 그의 관점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조망하게 한 편의 논문과 같이 전개되었다. 저자는 유신론에 뿌리를 둔 기독교 세계관과 애니미즘 그리고 세속주의가 어떤 생각을 내포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변화를 가져오는 세계관 개발에 대한 필요와 진보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만연된 가난과 빈곤, 우상 숭배, 물질만능주의를 변혁시킴으로써 열방을 제자화하는 힘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세상 빈곤문제의 원인이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살아가는 방식을 형성하는 문화적 가치관과 종교적 신념을 설명했다.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이다. 더 많은 돈이나 사람들의 도움,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알뜰한 행정, 더 나은 체계나 민중의 참여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생각(세계관)임을 강조하고 있다.
"비전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 하나는 광의의 비전으로,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기아를 퇴치하고,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또 하나는 협의의 비전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 _ 20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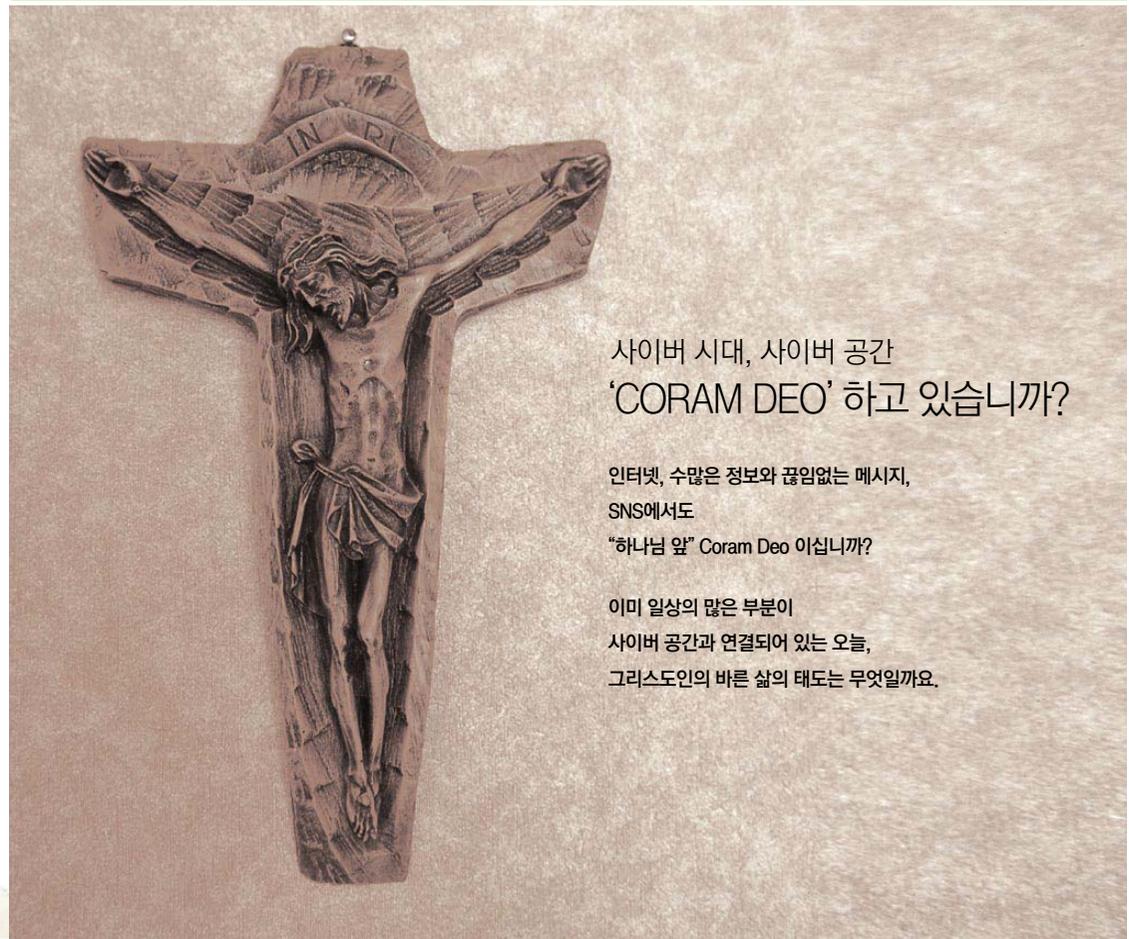
대로우 밀러가 속한
"The Disciple Nations Alliance(DNA)"를 소개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지향한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 건강한 교회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사회 및 문화적 변화를 위해 주도한다. 하나님의 명령이 구성원 모두에게, 사회 전 분야에서 드러나며,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들을 제자화한다. 우리는 비극적인 역설의 시기에 살고 있다.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가난과 절망이 넘쳐난다. 오히려 교회가 지역사회와 국가의 요구에 무관한 문화에 몰입하고 있다. 지금은 교회가 나라를 제자화하기보다 오히려 국가에 의해 제자화되고 있다. 변화의 과도기에 돌은 패러다임을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다고 믿는다. DNA는 개인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제자화를 지향한다. DNA의 사역은 "병든 자에게 치유를,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다름으로 갈등하는 자에게는 평화를 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전 세계 형제교회의 자연적 성장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실천되도록 돕는데 단체의 비전이 있다.

DNA <http://www.disciplenations.org/>



WORLDVIEW SPECIAL



사이버 시대, 사이버 공간
'CORAM DEO'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수많은 정보와 끊임없는 메시지,
SNS에서도
"하나님 앞" Coram Deo 이십니까?

이미 일상의 많은 부분이
사이버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